



■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 웨스트힐장로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

벨리교협 주관 성탄절 축하 연합예배 드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샌퍼난도벨리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회장 김원락 목사) 주관 성탄절 축하 연합 음악예배를 12월 12일 오후 6시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에서 드렸다. 예배는 김원락 목사의 사회, 양수철 목사(벨리 교협 경증회장)의 기도, 김인식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와 2부 순서로 성탄 축하 찬양제가 열렸다. 찬양제는 웨스트힐장로교회 유년부, 예브리데이교회 국악연주, 벨리서울교회 토폴연주, 벨리제일장로교회 유스그룹 등이 출연해 은

혜로운 성탄 찬양을 연주했다. 또한 김원락 목사가 벨리 교협 직전 회장 이정현 목사에게 공로감사패 수여하는 시간과 벨리지역 대학생 및 신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시간도 가졌다. 김원락 목사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벨리지역 교회가 연합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예배와 함께 어려운 학생들 20명에게 각 1천불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내년에는 벨리지역 교회뿐 아니라 각 한인단체에서도 장학금 후원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미국 학자들이 보는 한국 기독교, 어떤 모습일까?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분야의 미국 학자들이 모여 ‘한국 기독교’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아틀란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패널토의는 지난 10일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제임스 T. 래니 박사(에모리대학 Emeritus 학장, 전 주한미국대사), 도날드 N. 클락 교수(트리니티신학대 역사학), 빌 브라운 박사(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전 CIA 경제분석가), 조지 브라이언트 워스 목사(에틀랜타제일장로교회 담임)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배워야 할 점, 단점을 거침없이 토론했다.

Intelligence, 전 CIA 경제분석가, 조지 브라이언트 워스 목사(에틀랜타제일장로교회 담임)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배워야 할 점, 단점을 거침없이 토론했다. 이날 한국 기독교의 단점으로 ‘교단의 지나친 분열’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타 교단 보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individual centered)’ 장로교단의 특징적

교리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경제학자의 의견도 있었다. 제임스 T. 래니 박사(에모리대학 Emeritus 학장)은 “거의 같은 시기 북음이 전파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독교인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의 부흥원인은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도날드 N. 클락 교수(트리니티신학대 역사학)는 “한국으로 건너간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한글

을 가르쳐 문맹퇴치에 앞장섰고, 여성들의 계몽운동을 통해 압제 당하는 일제강점기 시대, 자긍심 고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라며 “기독교의 여성 존중과 인간 존엄성 의식이 한국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볼 때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라 추측했다. 클락 교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 총 2대에 걸친 한국 선교사 집안으로 10세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교신학대학 제 2대 총장을 지냈다. 장소를 제공한 조지 브라이언트 워스 목사(제일장로교회 담임)는 100여 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복음을 이제는 다시 한국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미국 내 장로교의 교세는 줄고, 파송 선교사 숫자도



(왼쪽부터) 조지 브라이언트 워스 목사, 빌 브라운 박사, 도날드 N. 클락 교수, 제임스 T. 래니 박사.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미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이 같은 선교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빌 브라운 박사(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는 “한국은 ‘개인 중심(Individual Centered)’에 초점이 맞춰진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 큰 번영과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라는 해석도 가능하

다”며 그러나 “개인을 중시하다 보니, 교단의 지나친 분열이 조장됐다. 한 마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의 부모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패널토의 도중 평양대부흥 사건을 목격한 친 아버지의 기록을 읽으며, 생생한 당시 부흥 사건을 회고하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 하먼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신개념 온열매트
크로버 탄소매트
탄소 (Carbon) 함유량?
숯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미래형 소재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온열매트에 비해 열 효율이 높아 절전형이다.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및 항균, 탈취, 항습효과가 뛰어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Well Being) 소재이다.

전기선이 없는 건강기능성 매트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매트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과학이 기술로 실현 되었습니다. 매트안에 전기선을 걸어내고 그대신 탄소섬유 발열체를 통해 피부에 느끼는 온열효과가 높고 열이 공간으로 고르게 방사되는 복사열 가열방식이어서 안방,침실에 따사로운 온기가 전해집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복사열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에서 방사되는 열은 전기선의 인위적인 열이 아닌 원적외선 복사열이 발산 되므로 선조들의 따뜻한 온돌방처럼 훈훈한 온기를 깊숙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숙면, 항균, 곰팡이 억제 및 냄새제거에 탁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탈취기능 (84%), 항균기능 (99%)

세계 최초 전기 제품중 유일하게 물세탁 (세탁기) 이 가능한 신제품
세계 최초 4개의 발명특허로 이루어낸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절연이 가능한 특수 4중 “안정코팅”으로 세탁 후 건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 카펫이고, 물기있는 곳은 스스로 전원이 차단되므로 감전의 위험이 없고, 완전히 건조 후 전원이 전열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기능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난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한쪽만 사용할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리구조형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난방1, 난방2를 선택하여 누르시고 취침기능 버튼을 누르며 숙면 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35℃ (±2℃) 를 유지시켜 줍니다. 난방 기능이 10시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Crover’ 는 ‘Cross’ 와 ‘Clover’ 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문의전화
Crover Inc
323-588-7277
WWW.CROVERGREEN.COM

QUEEN \$ 349
KING \$ 429

판매처

LA Sweet Dream (213)389-2828 김스전기 (213) 386-4882 정스 백화점 (213) 385-1111 ABC 플라자 (213) 386-1155 헬스코리아 (213)-487-4986 아씨마켓 (323)-733-4986 캘러리아	가디나 Marukai (310)660-6300 트렌스 네이버스 (310)326-6666 세리투스 이블타운 (562)402-3737 H Mart 내 산호세 이블나라 (408)834-3004	가든그로브 이블타운 (714)530-6378 아리랑 마켓 옆 샌디에고 이블타운 (656)496-0766 샌디에고 시온마켓 내 애난데일 Spring Water (571)228-2260 아틀란타 바이엔조이 (770)-232-7846	시카고 Hi-Mart (773)478-0007 타코마 팔도월드 (253)581-7800 신신백화점(253)582-2975 뉴욕 아씨한복(718)886-8106
---	--	--	---

하나님의 축복 '행복한 부부'

12일 세계비전교회서 다이아몬드, 금혼, 은혼 감사예배 드려



한국의 보건복지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 이상이 이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가입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이혼율(2009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각기 배경이 다른 남자가 만나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를 넘어 해로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재연 목사)에는 60년(다이아몬드)을 함께 살아온 2쌍의 부부, 50년(금혼)을 함께한 3쌍의 부부, 25년(은혼)을 함께한 20쌍의 부부가 모여 하나

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긴 세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며, 자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김재연 목사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자손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라 전했다.

평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온 세계비전교회는 이 같은 다이아몬드, 금혼, 은혼 감사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비전을 나눴다.

(박상미 기자)

'이웃과 지역사회 위한 아낌없는 섬김'



◆ 나성영락교회와이낫파운데이션 기금 전달식 개최 ◆

"기독교 상담소는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를 세우고, 특히 1세와 2세간의 갈등, 가정 폭력 등의 문제들을 성경적 원리로 새로운 삶의 회복을 인도하는 곳입니다. 와이낫파운데이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사역의 큰 힘이 됩니다." - 영인숙 소장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와이낫파운데이션(YNOT Foundation) 설립 7

주년을 맞아 한인지역과 타민족 지역사회 후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 및 만찬회가 지난 13일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와이낫파운데이션은 지난 6년간 1백 5십만불 이상

을 다민족 단체들을 위해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59개 비영리 단체, 총20만불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와이낫파운데이션 대표 이사 사무엘 목사는 "각 단체들을 위한 후원금의 목적은 비영리 단체들의 사역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LA 한인교단인종 커뮤니티까지 삶의 질적 향상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희선 장로(나성영락교회 커뮤니티 사역부)의 환영인사, 임철호 장로(YNOT 재단 이사장), 립형천 목사의 설교, 수혜자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재일 기자)

+ 라파메디주관 '아산병원 찾아가는 무료 건강강좌'

◎ 아주관광 후원으로 벤엘장로교회서

라파메디가 주관하고 아주관광이 후원하는 서울아산병원 '찾아가는 무료 건강강좌'가 지난 12일(주일) 벤엘장로교회(담임 변영의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 5차례에 걸쳐 연간 기획으로 시작된 무료 건강강좌의 첫 번째 주제는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이며,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소장 대장 치료 내시경클리닉 센터소장이면서 현재 Cedars-sinai Medical Center에서 연수 중인 변정식 교수가 강의했다.

건강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는 추천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권과 미서부관광 상품권을 증정했으며, 이는 LA아주관광(대표 박평식)에서 특별 협찬했다.

박평식 대표는 "무엇이든지 잘 알아야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데, 건강강좌가 교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좌가 개최된 벤엘장로교회 변영의 목사는 "교민들을 위한 의료정보를 나누는 일에 장소를



서울아산병원 LA사무소 이성이 운영실장(좌)과 건강강좌에서 강의한 서울아산병원 변정식 교수(우)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며 "유익한 건강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활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관광이 후원하고 라파메디가 주관하는 무료 건강강좌는 2011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한편 라파메디는 '미주최초 의료포털' 사이트로 지난 8월 기독교일보에서 런칭했다. www.raphamd.com 강좌 문의: 213) 388-4000

(박상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애 기초, 중, 고급 영어, 컴퓨터 사용, 학비 전액 보조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명씩, 소셜 변호, 워킹퍼미트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셔+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G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웨어-머큐리 콘도 상가 2층 월셔 + 웨스턴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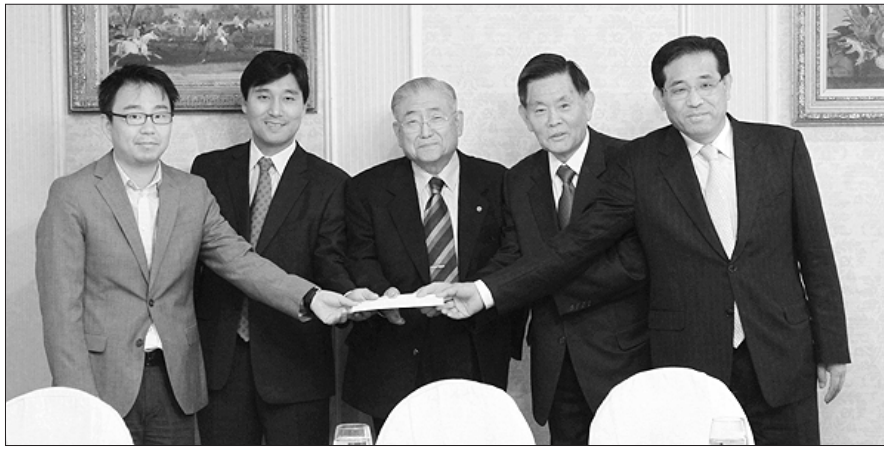
☞ 교회 및 한인단체 지속적 사랑의 쌀 성금 보내와

사랑의 쌀 운동으로 더욱 따뜻한 한인사회

미주 기독교계와 한인사회가 함께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주 성서화운동본부는 매주 목요일 JJ그랜드호텔에서 사랑의 쌀 성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지난 9일에는 LA총영사관(500불),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 5000불),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3000불), 한미동포재단(김영태 이사장, 5000불), 이화여고동문회(김병화 회장, 1000불) 등 교계와 한인단체들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주관하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



9일 사랑의 쌀 성금 전달식에서 (가장 왼쪽)샌페드로 홀세일마트 상조회(회장 강창근)와 (가장 오른쪽) 남가주빛내리교회(박용덕 목사)에서 각각 1천불을 전달했다.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는 "12월 14일 현재 성금 입금액과 작정액을 합쳐 총40,054불이 모였다"며 "교회와 한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차 사랑의 쌀 나눔 잔치는 12월 18일(토)에 열려 LA 총영사관과 LA한인회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

사)에서는 각각 450포, 샌디에고 사랑교회(박병섭 목사)에서는 900포의 쌀을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나눔 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성서화운동본부나 각 교회에서 배부 받은 사랑의 쌀 교환권을 제시하면 쌀을 배부 받을 수 있다.

12월 30일(목)에 개최되는

제2차 나눔 잔치에서는 기독교 및 타 종교 단체 및 비영리기관들을 위해 사랑의 쌀이 전달된다.

사랑의 쌀 지원 예약: 미주성서화운동본부 213-384-5232 후원금 체크 발송: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505 S. Virgil Ave, #160, LA, CA 90020)

소중한사람들, 홈리스 초청 성탄절 콘서트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은 지난 11일 Union Rescue Mission 예배실에서 '홈리스 초청' 성탄절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가주장로성가단,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합창단, 한국선교무용예술원, 리틀비앙상

블, 테너 최순식, 소프라노 박종희 등이 출연했다. 김수철 목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방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홈리스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홈리스와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를 마친 후에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 나눴으며, 남가주장로성가단에서 홈리스들을 위한 성탄선물을 나눠줬다.

〈박상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합창단



남가주장로성가단

신·구 협력 모범되는 'OC원로목사회 정기총회' 열려



지역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협력함으로 타의 본을 보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원로목사회(이하 OC원로목사회) 정

기총회가 지난 13일(월) 홀러튼 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1년도 OC원로목사회 회장은 김명식 목사이며 부회

장 정영수 목사, 총무 이종은 목사, 서기 계한교 목사, 회계 박승환 목사도 각각 결정됐다. OC원로목사회는 매달 월례회를 오렌

지카운티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교회와 목회자,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이에 대해 월례회 장소를 제공한 해당교회는 원로목사들을 대접하고 교제하는 등 훈훈한 목회자 선후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OC원로목사회는 오렌지 카운티교회(회장 박용덕 목사) 회장을 천거하는 전통을 세워 원로목사회와 교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성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총 무 : 박세헌 목사
사무국장 : 양경선 목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을 제물인 어린양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가득한 평화!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 장 : 박종덕 목사 (남가주 빛내리 교회 담임)

성탄을 축하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마1장 23절)

이희철 목사 하나님의 뜻 이루는 '갯스윌교회'로



이희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는 올해로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인랜드지역 최초의 한인 교회이다. 작년까지 포모나한인 교회는 이름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교회가 40여년 사용되었던 교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고자 이유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거기에는 세대와 계층, 인종을 아우르는 연합과 화합의 비전을 심었다. 이로써 '갯스윌연합교회'가 되었다.

40년이 넘는 교회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 상태였고 15년 전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식적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이름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 야곱, 사울 등 이름을 바꾼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싸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묵어있던 모습을 벗어나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는 개척교회로의 열정과 헌신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신앙의 전통이 훌륭한 한국교회로, 역사가 있지만 늘 새 포주와 같이 끓어오르는 교회로, 여러 계층과 세대가 있지만 모두 함께 어울리는 가족 같은 따뜻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갯스윌연합교회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교회의 비전은 말했듯이

**창립 42주년 갯스윌연합교회로 개명하고
세대 · 계층 · 인종간의 연합 꿈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다섯 가지 사명을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제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닮는 제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며, 다섯째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위한 기도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교회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살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계층과 세대를 나누어 친교를 나눕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역으로 연령과 부류를 자주 나누고 분리한다는 것이... 무조건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는 세대와 계층이 모두 다 어울립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될지라도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고 모두가 가족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랜드지역 최초의 한인교회인데 한인들에게 조금 생소한 C&MA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100년 이상 된 미국의 교단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에서 주류인 장로교나 감리교 등이 더욱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교단은 미국 교단으로 전 세계 8만여 교

원이 타 교단에 비해 많습니다. 한인교회들이 미 전역에 많아진 것도 이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단은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4년이라는 계약기간 중 1년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 2년은 언어를 충분히 공부하도록 하고 남은 1년간 선교에 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4년이 끝



나면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단체와 교회의 리더들의 컨퍼런스를 통해 파송 선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좋고 본인이 원하면 다시 계약을 하고 4년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교단에서 합니다. 대신 단기간의 열매에 급급하지 않고 선교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의 지원을 합니다. 매달 천불씩 1년간 돕습니다. 2년부터는 500불씩 돕고 재정자립이 어려울 경우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속된 교회는 재정의 2%를 선교비(그레이트 커미션 펀드)로, 다른 2%를 개척선교비 등으로 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멕시코 빈민사역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가 이용모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한신대 출신으로 기장측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미국에 오셨는데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빈민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할아버지도 평양신학교를 나오시고 함경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면건 목사님이신데 함경도 지역에 20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3대째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gwachurch.org>

(박상미 기자)

교회내 신천지 추수꾼을 경계하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한선희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가 주관한 이단대책세미나가 13일(월)

토랜스 조은교회(담임 김바울

사우스베이목사회 주관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목사(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서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는 교회내 은밀히 침투한 신천지 추수꾼에 대해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는 교회내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포교전략을 전환

해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교회 홈페이지에도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는 글을 올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다. "신천지는 이만희씨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신천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

목사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교주 이만희 씨의 주장으로 청년들이 가솔하고,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재일 기자)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송년회 후 단체사진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함께 찬양해요

연말 송년회 개최, 2011년 연주 위한 단원 모집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은 지난 8일 한인타운 소재 중식당에서 연말을 맞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단장 장영순 권사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합창단을 인도하심을 감

사드린다"며 "2011년에도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단 정기연습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2011년 연주회를 위해 합창단 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213-255-6124로 문의하면 된다.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제 3 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성탄과 기쁨의 캐롤의 밤

출연진: Solists
임혜정 Music Instructor in City of Rancho Cucamonga Recreative Dept.
정화영 전 바다메오중창단멤버
김진이 H.S.M. 찬양사역자

그외 ...
한광호 장애를 딛고 일어서신 전 언론인
김영미 H.S.M. 피아니스트
이성원 시각장애 Computer Science 전공

www.hopesight.org

일시: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및 후원: 또감사선교회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
주최: Hope Sight Mission 비전시각장애인센터 (213) 480-8560 (213) 392-1030

[새벽강단 23] 뉴송교회 새벽예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회복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왜 21장이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 불신했던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와 사명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신 뒤에 곧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으로 사랑감당하라는 말씀이다. 사랑은 헌신하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 없이 주님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르심의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 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18절)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New Song)를 부르는 모습(계14:3-5)'에서 이름을 딴 뉴송교회(담임 장석천 목사)는 올해 2월 라크라센타 지역에서 창립했다. 마지막 시대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영혼구원에 힘쓰는 뉴송교회는 이 시대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넓고 평탄한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

2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21장은 베드로의 개인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치유

어떻게든 주를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

뉴송교회 장석천 목사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셨을까요? 첫째는, 상한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상처가 아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보다, 섬김보다 앞서 주님은 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며 달려가십시오.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 지며 따라가다 보면 순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랑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21장 15~19절〉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20장에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한 장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

둘째로 주님은 매번 질문

〈박상미 기자〉



장석천 목사

'예배하는 회사, 선교하는 회사!' Crover Inc

남가주에 찾아온 은근한 겨울 추위가 따듯한 한국식 아랫목을 절로 그리게 한다. 자연스레 난방기구 광고에 눈길이 끌려 보니 '매트 안에 전기선이 없는 신개념 온열매트'라고 하고 'Crover'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철자가 틀린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는 자그맣게 설명이 달려 있었다. 'Crover는 Cross와 Clover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Crover Inc 사장 신동철 집사

예사롭지(?) 않은 이름에 Crover Inc 라는 회사에 찾아 가보니 역시 예사롭지 않은 사장님이 있었다. 이 회사를 맡고 있는 사장은 젊은 사업가 신동철(Douglas Shin)집사였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교회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기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지요."

신 집사는 이 기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각종 모임에 섭렵

사장 신동철 집사... "십자가 행복 전해요"

그는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불공장과 함께 관련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 크게 키워볼 요량으로 중국계 회사와 합병을 했지만, 함께 일했던 파트너의 배신으로 회사는 문 닫기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악화됐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기 바로 직전부터 형식적이거나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회사가 힘들어 지면서 반대로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사업하느라 바빴는데 고객도 떨어지고 판매할 물건도 줄어드니 일이 없는 거죠. 그때부

하고, 사업상 점대도 거리낌 없이 해온 그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도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죄가 깨달아 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죄를 지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장난스럽게 하던 욕까지도 하고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웃음)"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이름변경\$290
-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20년을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면,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밴드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업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반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업을 계속 하도록 응답하셨다. "작년에 커네티컷에 있는 작은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훈련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탄소매트'라는 신개념 온열매트를 소개시켜 주셨죠."

숯이 주원료인 탄소섬유로 만든 탄소매트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성질이 있어 매트 안에 전기선이 필요 없다. 이 탄소섬유는 원적외선 복사열을 발산하므로 훈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며, 더불어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은 인체에 이롭다. 더욱이 전기제품 중 유일하게 물세탁이 가능한 신제품으로 관련 특허만 4개이다.

"그 분의 소개로 샘플을 받아 직접 써 보게 됐고, 정말 좋더라고요. 올해 초 특허를 받은 업체(한국)와 계약을 맺고 미주 캐나다 지역 독점판매권을 얻게 됐습니다." 신 집사는 요즘 월 새 없이 걸려오는 주문전화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전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지만 '나의 회사'가 아닌 '주님의 회사'기 때문에 더 신난다. 더 감사하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예요. 그런데 여긴 주님의 회사죠. 비즈니스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행복'이란 회사 이름처럼 십자가로 행복한 사장, 십자가로 행복한 직원, 십자가로 행복한 회사가 되길 원한다.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도 십자가의 행복을 전하는 비전이 품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 하기 보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데에 민감해 지기를 원해요. 크로버 회사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거든요. 그것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뛰는 거예요."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0년 12월 20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베델한인교회 목회자 청빙

베델한인교회 청년교회 예산채플에서 함께 동역할 Full Time 목회자(부목사)를 찾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청합니다.

첨부서류 이력서 1통(가족사진 1장) / 최근 설교 영상 CD

자격 영주권자 이상

마감시한 2010년 12월 31일

문의 양성필 목사 949-854-4010 (yangpastor@gmail.com)
장영락 목사 949-922-8930 (wip7@hotmail.com)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Fax : 949-854-4018

▶ 다리놓는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

[기획 연재4]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가졌는가?: Got Jesus' DNA?



최성은 목사 (남침례교신학교 전도신학, 교회성장 Ph.D)

전 세계 이민교회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창립한 코딤(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은 지난 10월 2차 서부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딤은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이민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분야별 강의를 요약, 기획연재한다. -편집자주-

1963년 Western Michigan University 강당에서 Dr.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주일 11시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 차별이 심한 때 "the most segregated hour in this nation" 라고 말했다. 그 시간은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다.

그보다 얼마 전인 1955년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교사 출신인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Homogenous Unit Principle (HUP) 을 이야기 하며 "사람들은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선호한다" 는 현상에 근거해 HUP를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다 (도널드 맥가브란의 Bridges of God 이라는 책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의 두 번째 리더라 할 수 있는 피터 와그너는 이것을 널리 전파했다.

맥가브란의 HUP 는 교회 성장학의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 매김을 했고, 아직도 특히 백인 교회들은 아직도 이것을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형적인 도시에서 백인 중심의 대형교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던 그레고 이해는 하지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허물기 힘든 배경을 이해하는 면에서), 오랫동안 선교지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왜 선교사들의 부족한 언어

와 제한된 문화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세기에 것처럼 heterogeneous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의 불을 일으키셨는가?" 란 질문에 하나님 앞에 올 바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맥가브란이 의도하던 하지 않았던 그것을 교회 성장의 한 정당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1960년에 출석교인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는 불과 16개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출석 교인 2,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는 무려 1,210개로 늘어났다. 교회 성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맥가브란의 HUP 요소만으로 교회가 그렇게 대형화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수많은 미국 대형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모두가 아예 백인 중심이거나 흑인 중심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질성 집단이 주를 이룬 나라에서는 특별한 비판 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다민족으로 모인 Melting Pot인 미국 사회에서 종종 "교회는 가장 인종 차별이 심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intolerant) 집단" 이라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곤 한다. 복음 전도의 문을 막는 비판 요소를 제공한 셈이다.

마틴 루터킹의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 되고 있다 (물론 집심발라의 New York Brooklyn Tabernacle, Erin McManus의 Mosaic Church, 데이빗 기본스의 New Song 등의 좋은 다민족 교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맥가브란의 HUP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HUP를 교회성장의 한 요소로 사용하여 성장한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는지 의심이 든다. 다민

족 사회인 미국에서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 교단을 만들고 선교하고, 흑인은 흑인끼리 모여 교단을 만들고 선교하고,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모여 교단을 만들고 선교한다. "끼리 끼리"는 잘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민을 와서도 우리는 늘 한국 사람끼리 모인다. 필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징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죄 성 (by sinful nature) 가운데 나온 현상에 기인한 우리의 분리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맥가브란의 HUP를 받아 들였고, 그 중에 전형적으로 그것을 적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 하이벨스와 릭 워렌이다 (필자는 릭 워렌과 빌 하이벨스의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치는 그들의 훌륭한 점들도 있다). 빌 하이벨스는 책에서 밝히듯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20-40대 백인 중상층을 타겟 그룹으로 했다.

우리 같으면 영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다른 이질감이 많으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한국 사람을 core group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시카고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다민족 기회의 도시에서 과연 하나님은 백인들만을 위한 대형 교회를 원하셨을까?

사실 몇 년 전에 빌 하이벨스는 Christianity Today에서 이점을 시인하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후회 했다. HUP 같은 이론을 목회 초창기부터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했던 것을 "I was too naive, 내가 너무 순진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다민족 교회로 되 돌이키기에는 교회가 체질적으로 너무 백인화 되어 있다는 면을 여러 다민족 대담자들 앞에서 고백했다. 그레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며 다민족들을 리치 아웃하려는 시늉을 한다면 그레도 빌 하이벨스는 다른 뜻대 높은 백인 대형 교회 목사들보다는 열린 사람인 듯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HUP 는 인간의 죄 성에 근거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을 교회 성장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형성될 때 Homogenous Unit (동질성 집단으로 모이는) 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역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교회 성장의 숫자적인 생각으로 목회에 적용하면 편협적인, 그리고 때론 인종 차별적인 목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부류의 어떤 문화의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더디 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다.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꿈은 보편성을 가진 모습을 드러낸다 (엡 3: 1-13)"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995: 74-75).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줄곧 암송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다음구절은 잘 잊는 듯하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나가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점들, 문화, 언어, 인종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것을 뛰어 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나 예수님이 하신 cross culture 를 날마다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3절" 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Homogenous Unit Principle 은 오직 예수 DNA 이다. 이민 교회의 성장이 더디고 환경이 힘들더라도 힘내시기 바란다.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지붕아래 있는 지역 교회들이다. 능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다. 그러나 교회의 섬기는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곧 성육신의 피를 바탕으로 모든 부류의 다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겠다. 그것이 피부 색깔이 다른 다민족들이든, 문화가 다른 다양한 이민 사회속의 한국 사람들이든, 마음을 넓게 열고 "오직 예수" "Jesus-genous Unit Principle" 을 갖고 복음을 외치자.

나와 피부 색깔과 문화가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전국 잔치의 기쁨은 배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DNA 가 더 해 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DAN 를 가진 교회인가? 교회 성장 학자 Mark Dever 가 말했듯이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엄문하실 것이다. Got Jesus' DNA?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장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OFF)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 장 : 박효우 목사 / 수석부회장 : 김영대 목사
총 무 : 정요한 목사 / 서 기 : 김종태 목사
회 계 : 이흥현 목사

2911 W. Bevelry LA CA 90057
Tel: (213) 422-9191

성당을 축하합니다!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동안 하다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차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감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美대형교회들, 경제난 속에서도 계속 성장

출석률과 기부 모두 증가하는 경향

미국에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교인들의 출석률과 기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인 리더십 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제난은 대형교회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교회들 중 교인 수가 1만 명에서 1만5천 명 사이인 교회들과, 8천 명 이상인 교회들은 두 집단 모두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100%가 출석률과 기부 증가를 경험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교인 수 2천 명 이상인 교회들은 같은 기간 81%가 출석률에 있어서, 67%가 기부에 있어서 증가를 기록했다.

교인 수에 상관 없이 교회들 조사에 응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 64%는 교회 사역자들과 임직원



들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를 비록 평균 1~3% 가량으로 소폭이지만 인상했으며, 4%만이 인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들이 모두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대형교회들은 경제난을 이기기 위해서 주로 좀더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거나, 교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역 분야를 재구성해 꼭 필요한 사역에 집중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교회들의 대부분들은 국내에서의 구제 사역이나, 해외에서의 선교 사역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답했다.

오하이오 주 애크런체플 담임인 데이빗 플렛처 목사는 "경제난은 우리가 정말 해야 하고 하기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다"며 "이럴 때 경제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더십 네트워크가 '경제난이 교회 사역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지난 5월 71%였으며, 10월은 이보다 낮았지만 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시각이 미국 교계에 우세한 것을 보여준다. 조사들은 미국 253개 대형교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손현정 기자)

로버트 박의 '북한 모든 주민들을 위한 선언서'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 다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나선 로버트 박 씨가 '북한 모든 주민들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올해로 제노사이드협약 62주년을 맞이하여 라파엘 캄핀의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유대인 대학살 이후 가장 중요한 글로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국민들께 우리는 김정일과 김정은 집단으로 부터 고문, 노예, 노동, 기아, 공개처형 등 여러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구하고자 급히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정당한 정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는 명백히 국제 범죄자들로 한 세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수백만의 가족들을 분단의 실을 안기고, 수백만명을 살해하고 노예로 만든 것에 대해 인류와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노사이드 협약 2조에 의

하면 기독교인들과 가족 3세대를 학살하는 것은 집단 학살로 여겨짐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개입할 의무 뿐 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김정일 체제로 부터 살해되고 강간당하고 노예로 만들어지며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을 대신해 제노사이드 협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양심있는 자들과 글로벌 지도자들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고 억압받는 수백만의 북녘 동포들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한 체제가 조직적으로 죄 없는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인류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이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범죄 집단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정의를 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명의 북녘 동포들과 아이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김정일 제노사이드와 대학살에 의해 기아로 죽어가는 수백만의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유로 살 수 있는 것만을 희망하고 바라는 모든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합니다."



프랑스 젊은이들, 기성세대보다 더 경건한 신앙



프랑스 여론조사 결과 북유럽의 기독교가 건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여론조사는 11월에 프랑스 개신교 연맹(FPF), 기독교 일간지 '라 크로아', 고등사회과학연구소의 의뢰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6%의 개신교도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1주일에 적어도 1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 것

로 나타났다. 또한 45%의 개신교도가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고등사회과학연구소장인 장-폴 빌렘프(Jean-Paul Willaime)는 "더 젊을수록, 종교의무에 덜 적극적이라는 종교사회학적인 전통적인 경향과는 반대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그들 선배보다 더 독실하고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놀라움을 표명했

다. 또한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개신교의 다수를 루터파 개신교(56%)가 차지하고 있지만, 오순절파를 포함하는 북유럽주의 운동도 30%에 달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성장했음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북유럽주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미래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이번 조사의 연구원 제롬 프케(Jerome Fourquet)는 "가톨릭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루터파 개신교가 종교적

의무에 있어서 쇠락한 모습을 보이고, 기독교 신도가 점점 노쇠되어 가고 있다"면서 "반면에 젊고 역동적이고, 또 아주 실천적인 이러한 북유럽주의자들은 확실히 기독교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개신교 연맹(FPF) 또한 이번 조사가 개신교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역지로 각 교계의 경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방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물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코너스톤 교회

담 임: 이종용 목사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F: 310-530-8400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레이스 웨이브 교회

222 N. East St. Anaheim, CA92805 (교회)
1130 N. Euclid St. Unit 22, Anaheim, CA92801 (사무실)
전화 : 714-991-9881 714-699-0210 (Cell)

■ 섬기는 종 : 송규식 목사
최정자 목사
에스더 이 전도사

■ 예배시간 : 주일 오후2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Family Worship)

Website : www.gracewave.org
Email : Qsong405@gamil.com



글자에 갇혀 있던 성경 말씀, 생생하게 살아난다

인터뷰

이스라엘 현장학습 이끄는 이주섭 목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직접 밟으며, 성경을 ‘막연한 옛날이야기’가 아닌 ‘입체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현장학습’이 내년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주섭 목사(렘피스장로교회)의 인도로 진행된다.

1992년 성경이 기록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느끼고 싶어 홀로 이스라엘로 떠났던 이주섭 목사. ‘4X4지프’를 타고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10년 이상 누비며 체득한 경험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어떤 주석이나 신학서적보다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목사는 “성경의 실제 장소와 무관한 곳에 건축되었던 ‘기독교회’를 돌아보는 성지순례와 달리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 ‘성경의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섭 목사와 일문 일답.

◆내년 3월에 진행하는 이스라엘 현지답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성경의 지리적 배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지역 간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잦은 충돌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2011년 답사는 안전을 고려해 방문 가능한 성경 속 지역들을 방문한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념 장소들은 배제됐고, 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들로 구성해 성경의 역사, 지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의 많은 지역과 장소들을 답사하는데 열흘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한번의 여행으로 성경의 지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과 장소들로 구성했다. 안전문제로 제외된 곳은 가자지구, 사마리아 산지와 헤브론 산지다.”

◆여행사들의 다양한 ‘성지순례’ 상품이 붓물을 이루고, 교회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장려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성지순례’와 ‘이스라엘 현장학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성경의 실제 현장과 관계없는 성지 순례 코스인 기념 교회회는

장소와 지역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과 무관한 기념 교회회를 방문하므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이번 현장학습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예와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 성경의 실제 현장들을 답사할 것이다.”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고 할 때 아무리 성경을 ‘사실적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괴리(gap)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사실적 연구(이스라엘 현지답사)가 신앙생활에 왜 필요할까?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를 기준으로 지금 시대와 비교할 때 3천



지난 이스라엘 현장학습 모습. 설명하는 이가 이주섭 목사(오른쪽)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성경의 실제 현장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 갈 곳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팔레스타인은 일주일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한 달, 두 달에 다 볼 수 있지도 않다. 다만 이스라엘에 머무는 일정한 기간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래서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배경을 연구할 때, 연구가 밀집된 지역은 변화가 차이가 심한 반면 연구가 희소했던 네게브, 유대 광야 같은 지역은 성경 시대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는 없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과 그 결

과는 성경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현대 도로와 주택을 건설하면서 달라진 지형, 길, 물 공급 시설들을 살피고 심지어 기후의 차이도 연구하여 성경을 더욱 생생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한 예로 3월 말 또는 4월 초는 우기에서 건기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다. 특히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안 지역이나 사해 또는 요르단 인근과는 다르다. 3월 즈음에 낮은 초여름처럼 따뜻하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겻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온도는 독자들이 결코 예상할 수가 없다. 그 때 그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이 기록한 ‘그때의 기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요한복음 18:18)’. 3월 말 또는 4월 초 고난주간 밤에 감람산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추운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춥지 않다.

성경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현장에서 히브리어를 연구하시고, 10여 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고고학, 히브리어의 문화, 고대 성읍과 도로 등을 폭넓게 연구하셨다. 이후에도 일 년에 한 두 차례 이스라엘 현지를 다시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이미 ‘성지순례’를 여러 번 하신 분들에게도 이스라엘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현장학습에서 방문할 갈릴리 비닷가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는 해마다 교인들을 인솔해 지금까지 거의 60회 이상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그분의 방문 장소는 언제나 동일할 뿐 아니라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성지순례’다. 이런 성지순례는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남기므로 성경을 사실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인 ‘선입견’을 만든다.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통해 성경을 입체적이며, 사실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현장 학습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시작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한 장소만이 아니라 가능한 전체를 보도록 노력한다. 나사렛에서 뜨겁고, 다이나, 사마리아 산지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고대의 길 (가나 기념 장소가 아닌 실제의 가나)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4:43-54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통해 목회자 혹은 평신도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거나 느끼시는 점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이전에는 성경을 막연하게 생각하다 현장을 같이 돌아보면 마치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단색으로 보이던 성경이 이제는 천연색으로 보이며, 단순하게 글자만 읽던 성경이 이제는 상황

에서 읽게 되었다는 말이다.”

◆현장학습에 동행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처음에는 미국장로교단(PCUSA)에 속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작 됐지만, 점차 함께 동행하려는 분들이 많아 참여 범위를 목회자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평신도들로 넓혔다.”

◆답사를 원하는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가를 신청하면, 적어도 3개월간 미리 입을 성경과 우리가 방문할 다양한 지역, 장소들에 대한 자료들을 학습하게 된다. 기대한 것 이상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배경에 대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떠나기 전 충분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준비다.”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현재 렘피스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된 교단(PCUSA) 내 대회,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 교회의 요청에 따라 역사 지리 문화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른 말씀 집회를 인도한다. 매주 성경의 배경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약 500여 목회자들에게 보내 학문적인 활동도 겸하고 있다.”

※이주섭 목사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현장학습은 평신도와 목회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는 901-603-0302로 하면 된다.

(박현희 기자)

워싱턴 교협 임직원 및 자문위원 간담회

제36차 사업계획 발표 후 자문 듣는 시간 마련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배현수 목사) 임직원 및 자문위원 간담회가 12월 13일(월) 오전 11시 팰리스 식당에

서 열렸다. 1부 기도회는 차용호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김양일 목사(증경회장)의 기도, 정인량 목사(증경회장)의 설교, 손인화 목사(증경회장)의 합심 기도 인도, 김범수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김석현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간담회에서는 워싱턴교협 회장인 배현수 목사가 제36차 교협의 사업계획들을 발표하고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교회대향친선탁구대회, 재정이사회, 성탄축하음악예배 등이 이미 마쳐졌으며, 2011년에는 신년하례예배(1월 3일,

비영리기관 관련법 및 회계관리 세미나(1월 15일), 워청 찬양집회(3월), 부활절연합예배(4월), 어린이 찬양축제(5월), 목회자 사모 수양회(6월), 워싱턴 지역 복음화대상회(7월), 청소년 수양회(8월), 워청 수양회(8월), 부흥 2011(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9월), 원로목사 가을 야외예배(10월), 증경회장연합회 평가회(10월), 제37차 정기총회



워싱턴 교협 회장 배현수 목사

(10월)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재정이사회(회장 진이 집사)가 5월 말경 골프대회를 열어 펀드레이징을 도울 예정이다. 신년하례예배는 1월 3일(월) 오전 11시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 571-243-6322(회장 배현수 목사), 301-537-8522(총무 김범수 목사) 교협 웹사이트 : www.ckcgw.org

(조요한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 김인수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성탄을 축하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원) 제 29회 동문회 정기 총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주심이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원) 동문회 동문 제위 위에 총만사기길 기원합니다.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원) 동문회 29회 정기 총회를 11월 07일 개최 하려고 하였으나 총회 직전 개회가 될 동문이사회가 이사회원 자격 문제로 장시간 토론하였으나 이사회가 개회가 되지 못하게 되자 총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동문회 임원과 동문이사회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문회 임원과 동문 이사회임원은 12월 07일 오후 4:00 동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미주 장로회 신학 대학(원) 동문회 29회 정기 총회(2011년도 회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문 제위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전영훈 목사 / 서기: 고희열 목사

- ◆ 동문회 총회 12월 21일(화) 오후 6시:30
- ◆ 장 소 : 가든 뷔페 2층 회의실
- ◆ 주 소 : 11746 South St., Artesia, CA 90701
- ◆ 전 화 : (562) 924-2882
- ※ 저녁 식사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오후 5:30-6:3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원) 동문회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lumni
12 Deerwood W. 47C., Irvine, CA 92604
714)357-8986, 714)337-2373

◆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열려

WCC·이단·타종교...같은 듯 다른 김과 길



기호 2번 길자연 후보. ©이대웅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교계와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놓고 후보 정책토론회를 1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김동권·길자연 목사(기호순) 등 양 후보는 같은 교단(예장합동) 출신답게 신학적·사회적 문제에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으나,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패널로는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와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사회는 박종연 목사(예장합신 총무)가 맡았으며, 엄신형 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먼저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를 놓고 양 후보는 WCC의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도, WCC를 유지한 교단들이 한기총에 속해있는 만큼 총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질문은 양 후보의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에서 WCC 반대를 강력히 천명한 데서 나왔다.

길자연 후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합은 가능하나 혼합은 불가능하다"며 "WCC의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은 이미 증명된 만큼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을 주입하기 위해 교육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권 후보는 "한기총이 WCC 총회 자체를 반대 또는 지지하는 등 관여

할 사안이 아니다"며 "총회 자체를 방해하거나 행사에 오점을 남겨서 사회에 불신을 안겨주거나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가 분재하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사이비 규정을 놓고서는 한기총 이대위가 소속 교단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다 해도 교단별 교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을하게 이단으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는 "한기총 이대위가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조사해 규명한 이단성 관계는 제가 속한 교단 입장과 다를 게 없다"며 "대표회장이 될 경우 결코 보수적인 잣대로만 회헌 교단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길 후보는 "대표회장이 되면 이대위를 감시하는 기구를 뒤서 역을하게 이단으로 규정되는 일을 살피고, 이단성 문제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 입장이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한기총은 어느 후보와 밀착돼 추종하는 일은 안 되고, 성도들에게 주권을 잘 행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길 후보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선교사로 파송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타종교에 혜택을 주는 기독교인들을 자성하게 만들겠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길자연 후보는 "(2년간 대표회장을 역임한)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이 되려는 것은 노욕도 아니고 과욕도 아니다"며 "제게 남은 마지막 열정으로 흔들리는 한기총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익 목사(왼쪽)가 정책토론회에서 김동권·길자연 양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지 한기총이 조치는 여러 여과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갈등, '봉은사 땅밧기' 같은 타종교와의 관계를 놓고는 양 후보간 해법에 차이가 드러났다.

김 후보는 "대표회장이 되면 7대 종단협의회 대표자 모임을 즉각 가져 기독교 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불교에 부탁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타종교를 대하는 자세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불교가 지나치게 이해관계를 따져 기독교가 위축된 상황에서 7대종단협의회

독교북한선교회 총재를 맡아 북한 내부 실정과 북측 전과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굶주린 동포들을 지원하는 일은 정권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대표회장이 된다면 그 창구를 일원화해 적극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돕고 북측을 실어나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한기총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인다는 의미에서 후퇴하거나 변화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그저 돕는 일은 북한 체제 유지나 김정일 일당에 도움이 될 뿐이므로



기호 1번 김동권 후보. ©이대웅 기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한기총은 어느 후보와 밀착돼 추종하는 일은 안 되고, 성도들에게 주권을 잘 행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길 후보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선교사로 파송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타종교에 혜택을 주는 기독교인들을 자성하게 만들겠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길자연 후보는 "(2년간 대표회장을 역임한)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이 되려는 것은 노욕도 아니고 과욕도 아니다"며 "제게 남은 마지막 열정으로 흔들리는 한기총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권 후보는 "제가 (한기총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것을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희생적이고 겸손하게 힘있는 한기총을 이끌 봉사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길자연 목사님은 할 일을 많이 하셨으니 상 많이 받으실 줄 알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책토론회에서는 반기독교 관련 문제,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 기독교 문화유산 관리,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법적 질의 타당성 등을 놓고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주님처럼 사랑의 파도치기 계속해야”

한복협 12월 월례회 가져... 이웃성금 전달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이하 한복협)가 10일 아침 서울 강변교회에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12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브 린튼 박사,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선희 목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가 나섰다.

스티브 린튼 박사는 "한국사람들로부터 왜 조상들이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는지 질문을 받곤 한다"며 "그러나 조상님들은 한국을 사랑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왜 북한을 돕느냐는 질문도 받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이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설사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북한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집' 사역을 소개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호소했다. 이 박사는 "한국에 와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국 동포들,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따로 수익 구조가 없기에 외국인 노동

자를 돕는 것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까마귀들로 우리의 사역을 지원해주셨다"고 고백했다. 이 박사는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49%가 이혼을 한다. 60%가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다"며 "내년엔 이들을 위한 다문화 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늘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찾아간다면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바란다"면서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일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발표한 임 목사는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가야 한다"며 "파도가 바위를 깎아 동글게 만들듯, 교회가 사랑의 파도치기를 계속한다면 완악한 영혼들도 무너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 사랑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이 연말, 한국교회가 더욱 큰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길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0일 아침 서울 강변교회에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12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김진영 기자

예수님 탄생 하심을 축하합니다.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 ▶ 단장 장영순, 지휘 조한우, 총무 이용희
- ▶ 단원모집: 찬양하고자 하는 여성기독교인
- ▶ 연습장소: 올림픽장로교회
-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 ▶ T) 213-255-6124 / 818-270-8989

남가주 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4009 Willshire #100 B,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598-0191

성탄을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기총 이대위원장 고창곤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한기총 이대위, 음해 세력들의 이단정죄 행태 비판

는 위원장 고창곤 목사와 상담소장 김항안 목사, 서기 정철욱 목사 및 (이하 가나다 순) 나두산 목사(합신), 문병길 목사(개혁총연), 유인봉 목사(합동중앙), 이병순 목사(합동선목), 이정환 목사(통합), 정해송 목사(개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한기총 이대위를 음해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동 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던 이들로, 오히려 과거 그들의 이단 정죄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나두산 목사는 "(그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 이단을 규정한다"며 "이 단이라 할 수 없으면 '경계', '참여 금지', '불건전함', '이단성 있음' 등의 표현으로 묶어버린다. 조사를 해서 이단성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항안 목사도 "과거의 한기총 이대위에는 한 사람이 특정 대상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조사하자'고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조사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행태가

들 내에 월경잉태론, 성경에 대한 변태적 해석, 학력 위조, 교수 사칭 등의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끼리 그같은 의혹을 서로 비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음은

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조사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한기총 이대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창곤 목사 역시 "한기총 이대위가 자의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기총 회원교단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기 동안 소위원회 연구와 이대위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들에 대해 그 과정 및 배경 등을 설명하고, "과거에는 이대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임원회에서는 '보고'로 받고 대표회장 전결로써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했다"며 이대위 결의를 신중히 내린 만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 경고... 월경잉태론 등 조사 가능성 시사

있었다고 한다"며 "현 한기총 이대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오진(誤診)이 돌풍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또 음해 세력

시사했다.

특히 월경잉태론에 대해 김항안 목사는 "문제의 인사에 대해 해당 교단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기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조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이는 기독교 존립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

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조사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한기총 이대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창곤 목사 역시 "한기총 이대위가 자의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기총 회원교단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임원회가 이대위에 이첨한 다락방과 베뢰아에 대한 핵심 요청건은 "아직 공식적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고, 이는 한기총 임원회가 접수한 것이지 이대위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한기총 이대위가 임의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항의 방문까지 했다"고 밝혔다.

고창곤 목사는 이 자리에서 울

고 창곤 목사는 이 자리에서 울

(류재광 기자)

“WEA, 복음에 참여하는 세계 지역교회들 연맹체”

정흥호 교수, WEA의 신학 노선과 방향 설명



WEA의 신학에 대해 발표한 정흥호 교수. ©이대용 기자

‘WEA와 WCC의 신학과 선교’를 주제로 열린 13일 한국연합신교회 학술대회에서는 두 기관의 신학과 선교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2013년 WCC 총회의 부산 유치 이후 WCC의 선교와 신학 등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자세히 분석된 데 반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소개된 WEA의 선교와 신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이날 주제강연에서 “로잔의 핵심멤버는 대부분 WEA 소속이므로 로잔을 보면 WEA를 알 수 있다”고 밝힌 이광순 교수의 말처럼 올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를 전후로 로잔대회의 의의와 신학, 역사 등은 대부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WEA 신학노선과 방향’을

발제한 정흥호 교수(아신대)는 “WEA는 회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세계의 지역교회들과 함께 하는 연맹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4억 2천만명이 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같은 정체성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하는 약 128개국 교회들과 100개 국제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A(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는 1846년 the Evangelical Alliance of Great Britain(EAG)이 창설되고 이와 함께 영적 일치와 기도에 합심하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격려하며 부흥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the World Evangelical Fellowship(WEF)로 시작됐다. 이후 특별한 동기 부여가 없었고 특히 미국 남부

의 노예제도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해 활동이 멈춘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교제권을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고, 1951년 EAG와 새롭게 만들어진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NAE)와 21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 WEF를 다시 구성했다. 이후 200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회에서 명칭을 WEA로 변경했다.

WEA의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무오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과 믿음과 행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 최상의 권위를 갖는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신성한 기적을 행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육체적 부활과 승천, 중보사역,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임을 믿고 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잃어버린 자들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증거를 할 수 있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모든 진정한 믿는 자들의 일치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믿으며, 구원받는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 즉 생명의 부활로 잃어버린 자들과 멸망의 부활로 잃어버린 자들 모두의 부활을 믿고 있다.

정 교수는 “WEA는 위 신앙고백을 기초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에는 복음과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란 면에서 적극적인 신학을 전개하

고 있다”며 “WEA 신학위원회에 따르면 그 비전은 세계를 향해 앞서서 성경에 충실하며 신학적으로 알려주고 교회와 세상 모두에 연관성과 명확성을 갖고 언급하는 선지자적이며 복음적인 목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목적 또한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와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신학적 입장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적인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 연구한 것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연관성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유용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신학심사팀에 의해 완성시켜 간다 △모든 신학심사팀은 세계적으로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 신학적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전세계에 있는 각각의 신학자들과 실천가들을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고 전자매체를 통해 활용하고자 한다 △신학적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나라와 지역별 차원에서 개인과 교회 및 조직들을 네트워킹하고 있다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정 교수는 여러 보고서

와 자료를 통해 WEA의 신학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정흥호 교수는 “WEA는 복음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성경적인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찾고 선포하려는 데 신학의 의미를 찾고 있다”며 “무엇보다 진리의 절대성이나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도전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역사비평학을 통해 잘못 가르쳐온 성경의 내용을 바로잡아 성경적인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 교수는 “복음주의자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삶에 있어서 윤리나 거룩함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며, 건전하고 자발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진리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역동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WEA도 복음주의자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믿음이 ‘올바른 행동’과 분리돼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용 기자)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김인수 칼럼



김인수 총장
미주장신대

세界的 모든 교회들은 지금 대강절(待降節)을 맞이하고 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대강절기로 접어들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 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누구나 Merry Christmas! 라는 인사말을 한다. 이 말은 비단 교회 안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만 하는 인사말이 아니다. 성탄절에 길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비록 그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런 인사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타 종교의 교주(?)생일에까지 구태여 그런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크리스천이면서도 정작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은 원해도 못하는 경우 말이다. 공직자는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인사말을 해서 안 된다. 직전 대통령 부시가 어느

성탄절에 백악관 앞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Merry Christmas라 하지 않고 Happy Holidays 라고 한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 수정헌법 제1조
누구보다 철저한 신앙인이며 보수주의자인 부시가 왜 Me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

Merry Christmas or Happy Holidays

days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헌법 때문이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회합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여기 “미국은 국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 그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인류 역사 수 천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제정일치(祭政一致), 즉 국가와 종교가 하나라는 개념이 무너졌다. 과거 국왕은 국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수장도 되었다. 교회사에 나오는 용어 중, cujus regio, eius religio라는 것이 있다. 내용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그 주민의 종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후 987년 러시아의 통치자였던 Vladimir가 동방정통교회(회당정교회)를 슬라브 민족, 즉 러시아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러시아가 자연스

럽게 러시아정교회로 정착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국왕이 모든 국민의 종교를 결정하고 강요하던 시기는 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교도 혁명이다. 영국 튜더 왕가의 풍운아 헨리 8세는 1534년 수장령을 공포하면

의 미국을 이룬 것이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와서 무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예를 들면 왜 미국은 주일에 모든 직장, 학교, 관공서가 휴무를 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기독교 전통인 때문이다. 일찍이 로마제국에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313년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한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기독교도들의 자유스런 예배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닌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까지도 주일(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쉬고 있다.

무슬림들의 성일은 금요일이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 왜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휴일인 일요일 대신 금요일을 휴일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가? 만약 미국에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런 공약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렇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주일 대신 금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자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란 성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문법, 관습법, 전통법

이란 것도 있다.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오래 그렇게 해 왔으면 그것도 법이 된다.

▶ 퇴학을 청교도 정신
기독교인이 아랍권 나라에 가

서 산다면 당연히 금요일에 직장을 쉬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종교가 그리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탄절에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말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요 관습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인사말을 했다 해서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우대한다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고, 지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성탄절에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이 나라의 청교도 정신 즉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알라나, 붓다

나 브라마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교도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알콜, 마약, 도박, 음란 등 더러운 세속 문화가 좀 먹어 들어가는 미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건



국의 조상들이 내세웠던 위대한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온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위대한 꿈이 있었다. 이런 이상과 꿈은 20세기 전반까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기운은 날로 쇠해지고, 세속 문화가 그 세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미국이 사는 길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로 돌아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헌법이 절대법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의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살리지만, 인간들이 만든 법은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 한껏 자유를 누리려는 오늘 미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 알콜, 마약, 도박, 음란의 문화가 미국인 개인과 가정, 사회, 나아가 미국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성탄절은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당위 중 하나이다. Merry Christmas!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성탄절은 말만 들어도 기쁩니다. 말만 들어도 기쁜 말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탄

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냇물에

성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는 징검다리 돌들이 크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돌을 밟고 신나게 지나가면서 징검다리 돌을 귀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징검다리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

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십니다. 즉 구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돌입니다. 그 돌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들 돌, 삼일만에 살아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나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

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성탄과 십자가로 만드신 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 파이프 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축복의 통로, 행복파이프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산돌로 오신 것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몸도 살고 영혼도 살고 꿈도 삽니다.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가서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성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 세상과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디딤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산돌, 교회와 사회를 비추는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드름 고민 해결!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Before



After





T.213-380-0853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닥터살롬칼럼



살롬 김 박사
美 웨퍼드대학교

크로스 코드 <4>

성경이 암호화된 이유와 방식은 앞서 살핀 비유와 구약과 신약이라는 대칭적 짝 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 영적 세계는 육적 인간에게는 모두 암호와 비밀들이다. 복음서에서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오래했다면 유대의 제사장, 장로들은 모를 뿐더러 죽일 생각을 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이 모르면 오늘날 문화와 지성에 사로잡힌 이들이 어찌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한다고 착각할 때 더 궤변을 늘어 놓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육적 한계는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모르기에 암호를 생생해 낸다.

▶ 인간의 한계가 만든 암호화
이와 같이 성경의 암호화와 예수님에 대한 암호화는, 고의는 아니지만 인간의 한계와 무식으로 인하여 된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언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언어는 암호가 되고 해독이 필요하게 된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창세기 11장) 이후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흡여

▶ 1차원 언어: 시장 언어
자국어 중에서 가장 쉽게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시장 언어이다. 시장 언어는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과, 배 등의 물질 명사가 있고, 간다, 온다, 산다, 먹는다, 잔다 등의 행동성 기초 동사들로 구성된 것이 시장 언어이다. 이 언어는 물질 혹은 육체의 언어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활용하며 육체를 공유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은 기

감성과 상징의 이해가 매우 중요시된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도 예술 언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그 자체로 문학적인 재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함정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로그스 언어적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독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 3차원 언어: 문화 언어
3차원 언어는 문화 언어이다.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

▶ 4차원 언어: 종교 언어
4차원 언어는 종교 언어이다. 3차 언어까지는 이 땅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종교 언어는 삶과도 연관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종교 언어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깊은 철학적 체계와 초월적, 영성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 예술, 문화 언어가 종교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종교도 다른 종교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각 종교를 이해하려면 종교 용어들의 의미를 해독하고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천국, 지옥, 영생, 천사, 악마 등은 종교적 언어이다. 이것들은 예술 언어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참된 의미는 종교 언어를 이해할 때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종교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종교 언어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 5차원 언어: 로그스 언어
언어의 최고 경지는 로그스 언어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어이다. 로그스 언어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창조되는 언어이다.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언어이다. 이 언어는 시장, 예술, 문화 그리고 여러 종교 언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힌두교, 불교, 무교 등의 종교 언어를 알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언어인 로그

스 언어는 그 언어의 주인과 교통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로그스 언어는 지금까지의 어떤 언어와도 구분이 된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 로그스 언어로 암호화된 채 쓰여 있다. 예를 들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이름값을 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뜻 모를 암호일 뿐이다.

▶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 모두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성경은 위에서 구분한 모든 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에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은 쉽게 이해되는 내용 속에도 심오한 로그스 언어가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은 해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읽는 사람의 언어 수준에 따라, 성경의 이해도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은 이 로그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불행한 이유는 아무리 학식있는 사람도 성경의 감동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암호 해독을 못하기 때문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감동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심오한 비밀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차원에 따른 암호화

저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언어는 크게 두 가지, 문자적 개념과 내용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적이라 할 때는 기초 문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문자적인 것에는 1차 자국어와 2차 외국어가 속한다. 외국어는 당연히 해석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암호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자국어에서도 내용의 차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진다. 차원이 다르면 이해되지 못하므로 그것은 암호가 된다. 동일한 언어 속에서 내용과 상징 사용 여부, 사용자에 따라 여러 언어군을 구분할 수 있는데 편의상 시장 언어, 예술 언어, 문화 언어, 종교 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스 언어로 부르도록 하자. 이 구분에 근거하여 언어와 암호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적으로 이 기초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성경 암호의 함정이 있다. 이 기초 언어로 이해되는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경의 난해함을 비판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해석한다.

▶ 2차원 언어: 예술 언어
다음 단계는 예술 언어이다. 예술 언어는 상징을 사용한다. “그대는 나의 비밀기”라고 할 때 1차 시장 언어로 이해한다면 ‘나를 새 취급하고 소유하려 하더니’라고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1차 시장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예술 언어는 해독이 필요한 암호가 된다. 시와 소설, 음악의 악보, 미술의 선과 색 등은 모두 예술적 상징을 사용한다. 이 언어는

이것은 1차적인 시장 언어와 2차적인 예술 언어를 포함하면서 독특한 문화 특성 속에서 이해되는 언어이다. 젊은이의 문화, 여성 문화, 외국인 문화, 현대 문화들은 각각 장년 문화, 남성 문화, 국내 문화, 고대 문화 등과 구분을 가지며 각각 다른 접근과 암호 해독이 필요하다. 이 언어는 집단적이며 지성적이고 축적된 시간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헤를 중시하며 온 집안이 모여 이를 기념한다. 그날엔 삶은 계란을 깨서 먹는다. 이유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에 암호가 된다. 성찬식은 기독교 문화이다. 그러나 이 문화는 또한 로그스 언어적 비밀을 담고 있기에 성찬식의 비밀을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전능자는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능력이 더욱 탁월해졌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면 문제가 다 해결

될 것 같고, 젊고 건강하면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내가 상대하면 결국 내가 흥분하고 열기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문

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됩이나”(창4:5,6) 잘못은 자기가 하고도 흥분하여 분을 내는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 돌려 그를 돌려 쳐서 죽이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흥분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언

쳐서 복종하였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야 한다는 말은 내 여가를 더 재미있게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대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내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들립니다. 이 땅에서 오로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설교는, 요즘 같이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대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될 억지 강요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불신 세상 쪽에 향복하고 아예 거기 들러붙는 것은 더없이 편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술 담배 하고, 정욕 이끄는 대로 생활하고, 정말 무엇 하나 거리킬 것 없는 자유와 평화가 불신 세상 쪽에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목

숨과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사단이 세상에 던지고 있는 낯선밥인 것입니다.

‘이 약만 먹어봐 다 나아!’ ‘너를 무조건 출세 시켜 줄게’ 이런 사람들이 다 사기꾼인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주머니 속에 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문제를 내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이 있고 기도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기본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쫓겨 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문제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제해결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 4장에 나오는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열납되었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자 분을 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됩이

제나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흥분하는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 성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가 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자는 말은 여러 가지로 당장 어렵고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은 편안히 쉬 수 있는 하루를 더 피곤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선한 일에 봉사하

Advertisement for L.A. AUTO 정비 (Maintenance) featuring a car interior image, a list of services (Smog Check,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30/60/90K Service, A/C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24hr 213.247.6657,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라이م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턱터 박상용 보철 전문의	* 턱터 최인호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물 없이 심는 임플란트	안배라 치과대학 졸업	보스턴 임플란트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과잉 수료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반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치주치료 • TMJ (악관절장애, 소음현상)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보철환영: PPO, HMOA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상점 및 그라자용 Gondolas, 마켓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붙을 보류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MR 박은철 찾아주세요!**
싼 가격 보장

공정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2월 20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굿바이 Choo's 플랜

3개월 할인혜택 추신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행사기간 12월13일~12월31일 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1 한국에 가족이 있으세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 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2 국제전화 휴대폰 사용이 많으세요? **무료**

iTalk 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폰으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3 송금비 **\$9.99** **무료**

4 개통비 **\$29.99** **무료**

Merry Christmas!

추신수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추신수 글로벌 플랜 \$14.99/월 TAX 포함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olidays

...HYUNDAI HAS IT

2010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재고 총정리 세일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9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7,795 **세일가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25,625 **세일가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23,225 **세일가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2011년 신형 제네시스 (VIN # 113840)
정상가 \$38,485 **세일가 \$32,899**
(INCLUDE COMP. OR LOYALTY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3,186)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8,1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2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2,888**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OLD** 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 **SOLD** 70 **\$16,999**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 **SOLD** 216 **\$17,995**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 **SOLD** 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OLD** 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OLD** 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OLD** 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OLD** 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정



앤디 김



지니 안



존 김



한국어 상담 제니 김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let you return it. See dealer for details.